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6호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음력 6월 27일 · 불기 2555년 · 주간)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은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반 평이면 족합니다.

- 대구 파계사 율주 철우 스님



교단 재구성 필요

사부대중은 평등한가? 불교는 인도 카스트 제도에 반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불교에서 출가와 재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계급 구조에 가깝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출가와 재가 문제는 역할의 재분배가 아닌 교단을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가 매번 출 · 재가의 역할 문제를 고민한다면서 재가자에게 어떤 역할을 얼마나 허용해 줄까 하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출 · 재가의 역할은 단순히 불자 전문인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 · 재가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윤남진 소장은 출가자의 역할부터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사찰운영위원회를 예로 들어 사찰운영위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은 협의만 하게 하고 결정권을

출·재가 역할 분담에 앞서
교계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기존 관계로는 한계 다다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모와 구조, 시스템, 보편적 의식과 문화수준,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윤남진 소장은 중앙종무기관(중앙)이 플랫폼사업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소장은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을 "(종단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완강하게 실행함으로써 그 규칙이 공통의 틀(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남진 소장은 "종단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집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열세인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출 · 재가가 함께 '(가칭)이타적 창업 투자은행'을 만들고, 사회법적 중재 효력을 갖는 분쟁중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자 일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모두 출 · 재가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일문 스님은 발제문을 통해 "스님들이 종단운영을 전담하고 종무원들이 스님을 보좌하는 현재의 방식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토론자 성효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도 "이제는 같이 하자. 같이"라는 말로 출 · 재가자 역할을 재정립하자는데 동의했다.

토론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출가와 재가의 올바른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신행과 경영의 이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고 8면 조동섭 기자



불볕더위도 잊은 삼보일배

김천 직지사는 7월 18~20일 '직지사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의 중 · 고등학생 7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 학생들은 불볕더위 속에서 각자의 서원을 담은 삼보일배를 통해 마음을 다졌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문화재청 승격시켜줬더니…" 불만 토로

조계종이 정부 · 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는데, 문화재청만 변화가 없다는 논평을 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9일 대변인 정만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 · 여당이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의 보존 창달이라는 헌법 정신의 구현을 책임져야 할 문화재청만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은 강화된 권한과 권위는 취하고 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책임은 전가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계종은 최근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심사를 예로 들었다. 문화재청이 심사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지정이 보류됐다는 것. 조계종은 "연등회의 지정 보류 사유 또한 명확하지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중국이 연등회마저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예산과 관련해 종교간 갈등과 왜곡된 시각을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을 2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를 일부 언론은 '정부지원금 중 77%를 불교가 독식', '수천억 원

정부·여당 변했는데
문화재청만 변함없어
위원회에 책임 전가해서야

대의 특종종교 진흥자금' 등으로 표현하며 불교 달래기식 종교편향으로 보도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의 종교편향 운운한 보도는 대부분 문화재청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문화재청은 즉각 문화재 예산 내역과 전통문화관련 예산 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예산이 불교를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것인지, 국가지정 문화재이자 소중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것인지 당당히 밝히라는 주문이다.

조계종은 "만일 문화재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단지 불교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 당장 그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불교 재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철회하고 불교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비판 배경에 대해 논평에서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현장 낙단보 마애불을 두고 지정 · 비지정, 국가문화재급 · 시도문화재급 시비에 우선했고, 개발 논리에 아무런 대응조차 못했다. 또, 석가탑에 균열에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수장인 최광식 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시절 석가탑사리장엄구의 불교계 반환뿐만 아니라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등 불교계에 끊임없이 조력해온 인사이다. 또, 종단 내 문화재 관련 핵심 교역직 스님이 최 청장과 사제지간인 관계로 볼 때, 단순히 논평에 쓰인 대로 볼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논평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언급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기구이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 수반이지만 그 과정의 대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위원회 내 비불자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등회 지정 심사에서 문화재위원인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이 제척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논평은 조계종이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불심 달랠 수 밖에 없는 정부 · 여당과는 갈등을 그치고, 예산 집행 등 실무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잦은 문화재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동섭 기자

MB의 새주소사업 창씨개명 연상된다

실승·교불련·대불청,
새주소사업 중단 촉구

불교 지명을 말살하는 정부의 새 도로명 주소 시행을 중단하라는 불교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7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명 개편 작업이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승은 "주민 의견을 외면하고 전통문화 보존에 소홀한 도로명 개편이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실승은 또 총무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지명 조사 작업에 착수하고,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항의방문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성명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 종교 시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종교편향적 지침"이라며 "새 주소 시행의 강행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바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불교청년회도 "대국민의 정서와 문화재적 가치, 지역의 역사성,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민족전통(지명)문화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기범 · 이상언 기자





846호 CONTENTS

인터뷰 3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장속으로 5
김해 여여정사 백중음악제



특별기고 8
한국불교증흥대토론회

여름 특집 / 웰빙 11~14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16~17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상표출원 : 41-2011-0020246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류판매점 &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Fashion cafe

www.fashion-cafe.co.kr

불자여러분!
귀의삼보하오며
상생을 넘어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무주상보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패션카페를 벗삼아 재료삼아 함께 울고 웃고 해나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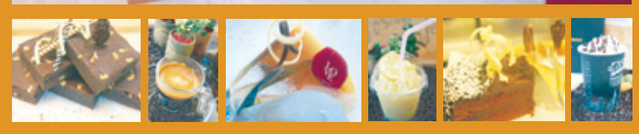
재고가 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서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거품없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여성의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패션카페
유행따라 인테리어를 바꾸시지 않아도 되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설계하여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6-5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지 사 : 점포 100m2 이상 / 대리점 : 점포 30m2 이상

전화문의 : 070-7759-0852 , 02-584-0543